

# 농식품 창업성장 지원 기업 수요에 맞게 시행

생진원, 5년 미만 기업 대상 단계별 기술이전·시제품제작 등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김동수원장, 이하 생진원)은 3년째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을 창업 사업자의 단계별로 기술이전 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상품화 디자인 지원, 사업화 성장단계로 홍보지원으로 각 단계별 기업 수요에 맞춘 패키지형으로 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본 사업은 5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창업 신규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 확보, 판로확대 계획 및 대표자의 사업화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5개 농식품 창업기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인 '향토자원 연구소'는 쌀가공식품 창업기업으로 독특한 식감의 쌀솥사탕(라이스블)

제조기술 확보로 지역 관광상품화와 동시에 글루텐프리 스낵제품 해외 수출의 Two Track 전략이 좋은 평을 받았다.

'성원PCM'은 기관지원, 항염증 및 미세먼지 제거 효능을 증진시킨 도라지 엑스텍스처 제품의 사업화를 기획, 트렌디한 기술 접목 및 소비자 기호 증진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유)소담식품'은 6차산업인증을 기반으로 체험형 공장 확대 계획 및 한국형 낫포와 간편식 혼합장으로 상품성을 높이는 시장침투 전략 수립 등 명확한 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쥬담음)'은 마쇄(磨碎)기술을 활용 신개념의 건강음료 개발을 기획해 향후 음료시장에서 신조류를 형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우리 푸디스'는 냄새 없는 청국장 제조기술

을 확보한 기업으로 청국장과 목 제품의 소포장 개발을 통해 기존 B2B위주의 판매망을 B2C로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 최근 코로나 등으로부터 비롯된 온라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전북도와 생진원은 2020년 선정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패키지형지원과 함께 제품개발 R&D, 경영, 마케팅, 노무,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할 것이라 밝혔다.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본 사업 외에도 농식품 창업이카데미,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북 농식품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추가 사업을 발굴해 농식품 창업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전북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7일 박성일 전북농협 본부장과 박병철 노조위원장, 전북농협 경영기획단, 전주완주시군지부 임직원 20여명은 완주군 비봉면 유홍석 농가에서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 농가 일손 부족 해결 '집중'

전북농협, 범농협 차원에서 이달 한달동안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중앙회, 농협은행, 생명(손해)보험, 시군지부 등 범농협 차원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한다.

7일 박성일 본부장과 박병철 노조위원장, 전북농협 경영기획단, 전주완주시군지부 임직원 20여명은 완주군 비봉면 유홍석 농가에서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더불어 농산물의 수급 현황 및 관료, 농촌인력문제 등 농가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최근 농촌의 인력 수급 상황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포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농촌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농협은 코로나 19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소규모농가·고령농가·독거농가 등 취약농가, 계절근로자 입국포기에 따른 대체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가, 꽃 소비 감소로 어려운

을 겪는 화훼농가 등을 대상으로 임직원 농촌 일손 돕기를 4월중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북농협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영농작업반을 지난 해 보다 6개 증가한 18개를 운영할 계획이며 사회봉사대상자를 영농철에 집중 투입하고, 전북도의 인력수급대책에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또한, 사태의 추이를 감안하여 기관 및 시민의 자발적인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성일 본부장은 "코로나 19 대응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지만, 본격적인 영농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손 돕기를 실시하게 됐다"며 "마스크·장갑 필수 착용, 개인위생 철저 준수, 대면 방식 최소화 등 예방활동수칙을 준수하며 4월 중 일손 돕기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aT, 5월까지 운송물류비 확대지원

수출을 위한 해외 운송수단 확보가 시급한 딸기, 신선버섯, 화훼류 등의 신선농산물에 대해 항공·선박운임 상승률과 시장상황을 반영한 수출물류비가 대폭 확대돼 오는 5월까지 추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농식품 수출품목에 대한 물류비를 2월말 선적분부터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기본물류비는 표준물류비의 7%로 지원 중인 가운데, 딸기는 항공수출이 집중된 충남아시장을 중심으로 지원단가를 Kg당 477원에서 1,212원으로 인상됐으며, 선박운임에 대해서도 kg당 160원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항공운임 상승과 국내의 수요감소라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버섯과 화훼류에 대해서도 수출물류비가 추가 지원된다. 특히 국내의 소비침체를 수출할 경우 모든 선박수출 물량에 대해 7%의 물류비가 추가 지원돼 올해 총 14%의 물류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유럽국가로 항공수출 물량이 많은 신선버섯에 대해서는 7%의 항공물류비가 추가 지원되며, 이외의 기타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선박운임의 평균 상승액인 kg당 9원의 물류비를 추가 적용해 선박을 이용한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중기협동조합 의료비 지원 접수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김영래)은 오늘부터 22일까지 2주간 제3차 '중소협동조합 의료비 지원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협동조합 의료비 지원사업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받고 있는 중앙회 대의수당을 기부하면서 마련된 기금으로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조합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가족으로, 수술 및 통원치료 등으로 100만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되었거나 1개월 이상 장기입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발생된 병원의 50%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는 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김영래 재단이사장은 "지금까지 고액의 의료비가 청구되었거나, 질병, 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던 중소기업조합 근로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인삼 재배지 소독 전 토양 온도·수분 확인

농진청, "훈증 소독, 토양 온도 높고 수분20% 내외 일때 가스 발생 원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인삼 재배지의 토양 소독(훈증 소독) 효과와 높이기 위해서는 알맞은 토양 온도와 수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7일 강조했다.

인삼을 한 곳에서 연속적으로 재배하면 뿌리가 썩는 병이 발생하기 쉽다. 훈증 소독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독제(다조멧 입제)를 사용해 가스로 토양 병원균을 살균하는 기술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훈증 소독은 낮은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토양 수분은 20% 내외일 때 효과가 뛰어나다.

토양 온도가 15도(°C) 이하로 낮을 때보다 온도가 높을수록(25°C~30°C) 가스 발생량이 많다.

봄·가을철 토양 온도는 20°C 내외이고 여름철에는 30°C까지 올라가므로 되도록 고온기에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토양 수분이 20% 내외일 때 가스 발생이 원활하다.



수분이 18% 이하로 적거나 논처럼 너무 많으면(23% 이상) 다조멧 입제의 가스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토양 속에 남아 있다가 인삼을 심고 난 뒤 작물에 피해를 주게 된다.

다조멧 입제는 10아르(a)당 40~60kg 정도를 사용하며 흙 깊이에 따라 작토층(겉흙) 20cm까지 살균할 때는 40kg 내외, 30cm까지 살균할 때는 60kg 내외를 사용한다.

훈증 가스는 위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으므로 심토층(속흙층)에 다조멧 입제를 넣으면 작토층 전체를 살균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다조멧 입제를 심토층에 넣을 때는 두둑 형성기로 두둑을 만든 다음 반 정도 뿌리고, 다시 두둑을 만들고 나머지 반을 뿌린다.

다조멧 입제를 뿌린 뒤에는 폴리에틸렌(PE) 투명비닐로 3주간 덮어두고, 이후 비닐을 제거한 후 3~4회 밭을 갈아 가스를 완전히 빼준다.

훈증 소독 후 김형미생물청(병원균 억제 미생물)을 피와 섞어 10아르(a)당 300kg을 뿌리거나 녹비작물(뚫거름작물)을 재배하면 토양 미생물을 복원하고 비옥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현동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장은 "인삼의 이어짓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양 훈증 소독을 할 때는 적절한 조건에서 처리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태양열 소독, 예정지 관리 방법 등 다양한 소독 방법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창업지원사업도 비대면으로

전북중기청, 온라인 평가 적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일 시행한 '예비창업패키지' 평가를 시작으로 모든 창업지원사업 평가에 비대면 온라인 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해 모집기간 연장, 온라인 평가 대체 등 창업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온라인 비대면 평가 매뉴얼을 마련했다.

특히, 피평가자들 편의를 위해 영상 통화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발표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평가 당일과 동일한 환경에서 사전 리허설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또한, 평가 당일에는 먼저 피평가자들의 대리참석 방지를 위해 인적사항(생년월일, 성명, 얼굴 등)을 확인하고 피평가자 동의를 거친 후 발표평가의 전 과정을 녹화할 예정으로, 사전 리허설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평가 당일 접속불량 등으로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평가 기회도 제공된다. 평가 종료 후에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활용해 평가위원에 대한 역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시 불편했던 사항도 건의하도록 하여 추후 비대면 온라인 평가 운영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예비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역기반로컬컬리에터활성화지원사업 등의 참여기업 모집 평가가 계획되어 있으며, 위 사업 모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